

전국 국악인들 순창에 모인다

26·27일 농악경연대회·전국국악대전 함께 열려

전국의 유명 국악인들부터 동호인까지 오는 26일 순창에 모여 열린 경연을 벌인다. 제37회 전국국악대전이 오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순창 향토회관에서 총 상금 1300만원 규모로 펼쳐진다. 또한 같은 날 장애인체육관에서는 제38회 전북 시·군 농악경연대회도 함께 열린다.

전통국악의 계승발전과 저변확대, 젊은 국악인들의 등용기회를 제공해 국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순창군과 전주농악보존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북도지회(회장 소덕임)가 주관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국악대전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로 나뉘어 접수하며, 판소리와 무용, 기악, 민요, 시조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단, 지난해 동일부분 대상 수상자나 해당 분야 주요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등은 참가가 제한된다. 판소리와 무용 분야는



제37회 전국국악대전이 오는 26일과 27일 순창 향토회관에서 펼쳐진다.

각각 대상을 뽑으며, 기악과 민요, 시조는 세 부문을 통합해 종합대상으로 한명의 우승자를 뽑는다.

일반부 판소리 부문 대상자에게는 시상금 2백만원과 함께 국회의 장상이 수여되며, 무용부문과 종합 부문(기악, 민요, 시조 포함) 대상

자에게는 각각 상금 2백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특히 고등부 우승자에게 교육부장관상이라는 특전이 주어지는 만큼 국악 꿈나무들의 열띤 경쟁도 또 다른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경연은 분야별로 각각 4분에서 10분 이내로 펼쳐지며, 시상식은 27일 일요일에 열린다. 오는 24일 오후 2시까지 접수가 진행되고 있어 국악대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국악협회 전라북도지회(☎063-271-2259)로 문의하거나 이메일(jbkugak@ham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 체육관에서는 전북에서 내로라하는 농악팀들이 모여 시명나는 농악 한마당이 펼쳐진다. 가을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농민들의 노고를 달래주던 농악이 순창에서 울려 퍼질 전망이다. 한해 농사로 고생했던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안이 될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의회, 지역발전 견인차 “눈에 띄네”

주민의견 수렴·애로사항 해결 등 으뜸의회 구현 앞장

제 8대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가 ‘모두가 하나되어 행복한 임실’의 시대를 열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열린의정, 으뜸의회’ 구현을 필두로 출범한 제8대 임실군의회는 나후된 임실 발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의회는 제27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2일 폐회한 제293회 임시회까지 총 15회에, 142일간의 적지 않은 회기 운영을 진행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조례 88건과 4400억원의 예산 및 결산 심의를 비롯해 군정 질문(2회)과 행정사무감사(1회), 기타 안건 35건 등 각종 의안을 처리했다.

특히 현장행정을 통해 직접 발의한 조례 시행이 큰 호응을 얻었다. 직접 발의한 ‘임실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 시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천했다는 평이다.

지난해 제2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85건을 지적, 이 중 시정조치요구(3건), 처리요구사항(45건), 건의(19건), 개선(18건) 등 효율적인 군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견제와 감시 역할의 기능을 충실히 해냈다.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

장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12개 읍·면 순회간담회는 8명 의원 전원이 직접 읍면을 순회하며 600여명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열정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를 통해 78건의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집행부의 검토와 협조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결하는 노력을 이어갔다.

지역현안에도 발 벗고 나섰다. 광주광역시 토양정화사업 변경등록 행정처리 철회 주장에 집행부와의 적극 공조체계를 이뤄 앞장서는 등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에 힘을 쏟았다.

이외에도 덕치 오리 부화장 문제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 제한 조치 규탄 성명서 발표 등 대외적인 군민의 의견을 대변했다.

신대용 군의장은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열린 의회를 실천하는 데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문제해결, 견제와 감시 등을 통해 임실군의 미래 발전을 이끄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 아리

관촌면, 아름다운 지역경관 조성

임실군 관촌면(면장 배경환)은 최근 관촌면 소재지 및 병안리 일대에 국화를 식재하며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국화 식재를 통해 관촌면민의 생활공간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관촌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배경환 면장은 “한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계절에 면민들이 노란국화를 통해 가을정취를 느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아름다운 거리 경관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읍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순창 ‘엔젤팀’ 은상 수상

순창군 체육회장배 2019 순창읍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장류축제기간에 성황리에 개최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번 대회는 순창장류축제장 주무대에서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린 댄스경연대회로, 순창군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경기권, 경산권, 충청권 등 전국의 청소년 댄스동아리 11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팀들은 바쁜 학업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연습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전문 댄스팀 못지 않은 수준 높은 실력과 매너로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대회결과, 팀원간의 호흡과 환상적인 안무를 선보인 팀업팀(순창군)이 대상의 영예를 안아 상장과 트로피, 15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아울러 금상 nine cruiser(경남 김해), 은상 엔젤팀(전북 순창), 우수상 아사텐스팀(부산광역시), 장려상 홀리팝(전북 전주), 인기상 나주초등학교(전남 나주), y.es팀(전북 전주), 가운flow팀(광주광역시)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대상을 받은 팀업팀 리더 김태희 학생은 “우리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지도자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넘치는 끼와 재능을 맘껏 펼쳐 장류축제가 흥겨움에 물들든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순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남원시, 노암산업단지 유치 순항 밝혀

조은과 투자협약 체결... 2020년 상반기까지 물티슈 생산시설 구축

남원시는 지난 2015년 조성한 노암산업단지 3지구(산업용지 25필지, 208천㎡) 새로운 입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업유치에 성공하면서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남원시에 따르면 주)조은(대표 신영식)과 22일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주)조은은 30억을 투자해 노암산업단지 3지구(부지 12,133㎡, 건축 2,313㎡ 규모)에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물티슈 생산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조은은 2010년 7월 전남순천에 공장을 설립한 이래 물티슈, 수세미 등의 생활용품 생산, 흡소핑 등 온라인 판매 및 주문생산 등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성장세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장이 협소해진 조은에서는 추가 사업부지를 탐색하던 중 최근 물티슈환경이 우수해진 남원시로 2공장 설립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물티



22일 남원시에 따르면 주)조은과 22일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슈 생산시설을 구축해 연간 25억원 매출 달성과 15명 신규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신영식 대표는 “조은의 대표 브랜드인 ‘미미오’는 아기를 생각하는 엄마의 헌신적인 마음처럼 고객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정신을 담아 만든 물티슈”라면서, “투철한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로 고객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완주 시장은 “남원에 투자하는 주)조은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28일부터 29일, 향토회관

순창군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향토회관에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갖는다. 오전 9시와 오후 2시 1회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람은 2020년 1월 1일부터 2년 1회 주기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농가와 갱신농가는 각각 3시간과 2시간씩 교육을 수료해야 인

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단체 인증(법인이나 작목반 등)의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받아야 인증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교육과정은 내내에도 계속 운영되며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업인을 위해 사이버 교육과정도 2020년 개설을 앞두고 있다.

또한 관내에서 교육 수료가 어렵다면 인근 타 시군에 가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관내 기업근로자 역량강화

남원시가 기업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2015년부터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을 5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오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노암동 화장품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남원시는 이번 교육에서 근로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몸과 맘을 힐링 할 수 있도록 기업 활성화를 위한 행복어(語) 사전, 영화로 배우는 소통과 공감, 왜 몸이 답인가, 신바람 나는 직장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기법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